

유치원 유아의 모-자간 애착유형분류와 애착에 대한 유아기질의 영향

Classifications of Attachment to Mother at Age 5 and 6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Attachment

홍 계 옥*

Hong, Kye ok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classify the attachment to mothers of kindergarten children based on a system for classifying attachment organization developed by Main and Cassidy(1988)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children's temperament with attachment. 32 children and their mothers were observed and videotaped in the strange situation. Mothers were administered the children's temperament questionnaire revised by Chun (1992). The data were analysed by t-test.

The results showed similarity between the attachment classifications of Main and Cassidy (1988) and those of Korean children. These results can be considered partial validation of Main and Cassidy's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measurement of the attachment of 5-to 6-year-old Korean children. Children's temperament has significant correlation to the security of attachment.

I. 서 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부모-자녀 애착 관계가 아동의 현재 그리고 후속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Bretherton, 1985). 특히 유아는 출생시부터 어머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갖게 되는데 유

아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애착의 질이 지속적으로 인지, 사회·정서발달과 관계가 있음이 밝혀져 왔다(Hartup, 1979; Sroufe, 1979).

지금까지의 애착에 관한 연구들은 초기 애착의 질이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주로 영·유아에 초점을 두어 왔다. Bowlby(1958; 1969)와 Ainsworth(1969; 1972)는 애착은 특정 대상과의 상호의존적 성격을 띠는 종 특유의 내재된 성향으로 일단 애착이 지속되면

* 상명여대, 국민대 강사

성인기까지 어떤 형태로든 지속되는데, 이러한 지속이 정신분석가나 사회학습이론가들이 주장하는 병리나 퇴행·고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성은 Main과 Cassidy의 종단연구를 비롯하여 여러 실증적 연구들에서도 보고되고 있다.(Main & Cassidy, 1988; Waters & Grossman, 1987). 예를 들면, Main과 Cassidy(1988)는 그들의 종단 연구에서, 영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유형은 6세 때의 애착유형에 대해서 높은 예측가능성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특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 높은 예측성을 보였다고 한다. 이는 위의 Bowlby나 Ainsworth가 주장한 애착의 지속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러한 애착의 지속성은 초기 뿐 아니라 후기의 애착유형도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예측가능케 한다. 그러나 현재 아동기의 애착안정성과 아동의 발달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영아기의 애착안정성과 아동기의 발달과의 관계는 영아-어머니관계의 질에 따른 것인지 현재 아동-어머니관계의 질에 따른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Main, Kaplan, & Cassidy, 1985). 이렇게 볼 때 초기의 애착유형과 후속 발달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현재 아동기의 애착상태와 현재의 발달을 관련시켜 연구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영·유아기 이후의 애착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적절한 애착측정도구가 존재하지 않았음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영·유아의 애착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는 Ainsworth(1971, 1978)의 낯선 상황 실험실이 사용되어 왔

며 이는 연구자들에 의해 대체적으로 표준화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초기 애착의 중요성과 더불어 적당한 애착측정도구의 존재로 인하여 거의 모든 연구가 생활초기, 즉 영·유아기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 6세아를 대상으로 비구조화된 낯선 상황에서의 재결합에서 나타나는 아이의 반응에 근거하여 애착유형분류를 시도한 Main과 Cassidy(1988)의 연구결과는 유치원 유아의 애착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에서도 애착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아동 초기 즉, 영·유아기에 국한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영·유아기 이후의 애착측정이 어려웠던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유치원 유아의 애착연구를 가능하게 할 유아를 위한 애착유형분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많은 애착연구자들은 애착유형의 발달에서의 질적인 차이에 관심을 두었는데 어머니의 역할, 예를 들면 민감성, 반응성과 같은 요인과 더불어 영·유아의 특성, 즉 기질과 같은 요인이 애착의 개인차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였다(Ainsworth, 1973).

Thomes와 Chess, 그리고 Birch(1968)가 제시한 기질은 '조화의 적합성'(goodness of fit) 개념으로서 유기체가 갖는 특성이나 능력이 환경의 요구와 조화를 이룬다면 잘 발달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행동이 잘 조화를 이룬다면 긍정적인 애착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Goldsmith와 Alansky(1987)는 기질은 어머

니의 특성만큼 애착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사실은 이미 Lewis등(1984)의 종단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Sroufe(1985)는 이와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아동의 기질은 어머니의 영향만큼 애착의 형성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Belsky, Rovine, 그리고 Taylor(1984)의 연구를 통하여 지지되었다.

이상과 같이 아동의 기질에 따른 영향력은 연구들마다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고 특히 국내에서는 아동의 기질과 애착의 형성에 대한 연구가 소홀시 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째 목적은 국내 유치원 유아의 애착연구를 위해 Main과 Cassidy의 애착유형 분류체계에 대한 검증을 시도해 보는 것이며 두번째 목적은 유아의 기질과 애착과의 관계를 고찰해 봄으로써 유아의 발달에 대한 규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둔다.

2. 연구 문제

진술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연구문제 1. 국내 유치원 유아의 모-자간 애착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치원 유아의 기질과 모-자간 애착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모-자간 애착활동

애착이란 특별히 두 개인간에 형성되는 능동적, 애정적, 상호적인 관계로서, 다시 말하면 인간이나 동물들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형성하며 어느 정도 지속하는 애정적인 유대하고 할 수 있다. Bowlby는 특정한 대상, 영아일 경우는 주로 어머니에 대한 행동이 동일한 상황하에서 다른 개인들에 대한 행동과 달라 특정한 대상과의 근접성을 유지하려는 행동과, 이러한 상태가 손상될 때 근접성을 회복하려는 행동으로 보았다(Bowlby, 1958).

Uganda에서 영아와 어머니와의 상호관계를 관찰하여 애착의 발달을 연구했던 Ainsworth는 Bowlby의 이론을 보다 정교화하고 확고히 발달시켰다(Ainsworth & Bell, 1970). 그에 의하면, 애착이란 사람이나 동물이 자신과 다른 특정한 개체 사이에 형성하는 정서적 유대이고 이러한 유대관계는 시·공간을 넘어서 지속된다는 것이다.

특히 Ainsworth(1973)는 영아의 행동적 측면에서 애착을 애착행동과 구분하였는데, 애착행동이란 애착이 형성된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접촉을 하려는 행동으로 이러한 애착행동은 양육자가 영아를 보호하게 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며 애착행동의 특징은 애착을 느끼는 애착대상에게의 접촉이나 접근, 의사전달의 기능을 하며 영아는 이런 행동을 통하여 애착대상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유지한다고 하였다.

2. 애착의 유형

영·유아는 긴장상태에 이르게 되면 애착행동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말하자면, 신체적, 심리적 위협을 느끼면, 자신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생리적 기능으로서 애착형상(주로 어머니)에게 울거나 접근 추구를 통하여 신호를 보낸다. 이러한 애착대상에 대한 애착행동은 개인의 내적상태와 환경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애착에 대한 개인차로 설명된다.

이러한 개인차에 대해서 단일지표로서 평가하던 초기 애착연구자들과는 달리 Ainsworth (1963, 1967)는 애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다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유아의 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낯선상황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긴장된 상황에서 어머니와 격리 및 재결합, 낯선이의 출현에 대하여 영아가 나타내는 애착행동들을 측정하여 영아의 애착을 관찰 평가하는 구조화된 실험절차이다.

여기에서 평가된 5가지 차원의 상호작용유목은 접근과 접촉추구, 접촉유지, 접근이나 상호작용회피, 접촉저항, 그리고 원거리 상호작용등을 포함한다.

낯선상황에서의 각 에피소드에서 각 해당유목에 관련된 행동의 주도성, 행동시작의 즉각성, 빈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7점 척도로 평가한다. 이 평가를 토대로 영아들의 애착의 질을 안정 대 불안정이라는 두차원으로 나누었으며, 이 구분은 주로 영아가 재결합시에 보이는 부정적 반응에 따라 결정한다 (Main, 1973).

이 구분을 토대로 영아의 애착상태를 안정 애착형, 불안정-회피형, 불안정-저항형으로 나누었다.

지금까지 애착형성에서의 개인차에 대한 설명은 전통적으로 영아에 촛점을 두어왔다. 이는 학령기 아동을 포함해서 조금 더 나이가

든 아동에 대한 애착유형 분류방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Kaplan, 1987; Main, Kaplan, & Cassidy, 1985).

따라서 Main과 Cassidy(1985;1987;1988)는 6세아의 애착구조를 인지하고 유형화하기 위한 분류방법 개발을 시도하였다. 그들이 Ainsworth의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낯선상황실험을 고려하여 4개의 에피소드로 개발한 애착체계는 1시간의 실험실 격리에 따른 것이다. 그들이 분류한 6세아의 애착유형은 5개의 주요 애착유형과 다시 그들의 10개 하위유형으로 나뉘어진다. Main과 Cassidy의 애착분류체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안정형 애착(secure:B):아동은 부모와 함께 있음을 편안하고 기쁘게 여긴다. 아동은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접근 및 접촉을 시도하거나 부모의 주도행위에 대해서 정적으로 반응한다.

(1) 지연적 안정형(secure-reserved):부모의 입장에 잠시 유예를 준다. 그렇지만 부모를 향한 행동이 확실히 따뜻하다.

(2) 고도의 안정형(very-secure):비모순적, 비회피적, 비의존적이며 애정적인 접촉 및 접촉을 시도하며 현저히 편안해 보인다.

(3) 의존적 안정형(secure-dependent):연령에 비해 어리게 행동하거나 재결합시 잠시 미묘한 혼란을 보여주나 회복되어 안정반응 패턴을 보여준다.

2)불안-회피형 애착(insecure-avoidant):아동은 전 에피소드동안 활동에 지속적으로 열중하며 부모와 거리를 두거나 부모의 출현 및 말을 무시한다.

(1) 고도의 회피형(highly avoidant:A):아동은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부모를 향

하긴 하되 부모를 무시한다.

(2) 중립적 회피형(avoidant through neutral ignoring): 부모를 향하고 잠시 대답은 하나 바쁜 활동이 우선이며 중립적인 것처럼 보인다.

3) 불안-모순형 애착(insecure-ambivalent: C): 아동은 부모에게 친밀성, 의존성, 자신의 미성숙 및 상당한 회피와 함께 슬픔, 공포, 증오를 미묘하게 보인다. 그러나 부모에게 접촉이나 접근을 추구하거나 애정적으로 기대는 등의 모순적인 행동을 한다.

(1) 증오적 모순형(ambivalent-hostile): 아동은 부모에게 노출된 증오를 나타낸다. 또한 부모와 자녀간에 미소와 따뜻함을 잠시 보인다.

(2) 수동적 모순형(ambivalent-passive): 아동이 목소리를 내거나 응석을 부리는 등 미숙한 행동을 보이거나 미묘한 증오나 신체적 모순의 감정이 명백하다.

4) 불안-통제형 애착(insecure-controlling: D): 아동은 부모의 주의 및 행동을 통제하려는 것처럼 보이며 아동에 대해 부모가 더 적합한 역할을 하도록 꾸민다.

(1) 처벌적 통제형(controlling-punitive): 아동은 부모를 거부하거나 당혹, 창피를 주는 행동을 한다.

(2) 보호적 통제형(control-overbright caregiving): 아동은 부모를 걱정하거나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또한 재결합시 지나친 명랑성을 보인다.

5) 불안-비분류 애착(insecure-unclassified: U): 이는 회피적, 모순적, 통제적이지 않은 불안정 애착유아의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

3. 유아의 기질과 모-자간 애착발달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를 비롯한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면서 부모의 특성과 행동에 따라 아동발달이 다른 것으로 예측하고 그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역할만을 강조하고 아동이 양육자에 미치는 영향을 소홀히 취급한 점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연구들이 있다.

Bell(1971)은 3개월 영아와 어머니 사이에서 보여지는 연속적인 행동을 약 15분간 관찰하여 영아의 행동유형이 어머니의 반응을 자극하며,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반응형태가 영아의 반응형태를 자극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Levine(1973)도 사회화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해왔던 점을 비판하면서 아동의 타고난 성격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이며, 그에 따라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이 다르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아동의 행동발달과 성격에 기본이 된다고 여겨지는 고유한 특성은 “기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며(Goldsmith & Gottman, 1981), 이는 일찍부터 뚜렷한 개인차를 나타내 주는 아동의 특성을 의미한다(Crockenberg, 1986).

기질은 어머니의 민감성만큼 애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Goldsmith & Alasky, 1987). 아동이 낯선 상황에서 보이는 행동은 아동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질적 민감성과 낯선 것에 대한 소심성 등 기질적 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Water, Vaughn 및 Egeland(1980)은 신생아때 유난히 까다로운 영아들이 불안정 애착유형이 될 가능성이 많았다고 하였다. 또한 Lewis등(1984)의 종단

연구에서도 이러한 애착유형과 기질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들은 모두 기질적으로 소심함이 과거의 양육경험보다 불안정 애착유형 아동을 더 잘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Belsky, Rovine과 Taylor(1984)는 이와 대조적인 연구결과를 보였는데 영아의 특성보다는 어머니의 호혜적 상호작용, 자극, 민감한 양육이 애착의 개인차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애착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아동의 기질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Sroufe(1985)의 견해와 일치한다. 이와 같이 기질의 애착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기질과 애착의 관련연구가 거의 없음을 생각해 볼 때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 시내에 소재한 유치원의 5, 6세된 유아 40명으로서, 남아 20명, 여아 20명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가능한 환경변인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모든 대상은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모 모두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졸업 이상인 가정의 아동으로 구성된다. 관찰결과 연령이 5세 미만이거나 사정이 생겨 참여하지 못한 유아들을 제외한 총 32명의 유아로서, 남아 19명, 여아 13명에 대한 관찰 자료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모-자애착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유아의 애착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Main과 Cassidy (1987; 1988)가 Ainsworth의 낯선상황절차를 수정하여 8개 에피소드를 4개로 간략하게 줄여서 사용한 실험절차를 본 연구자가 사용하여 유아들의 애착을 관찰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관찰척도로는 안정점수체계, 회피점수체계, 회피점수를 제외한 불안정 점수체계를 중심으로 하여 Main과 Cassidy가 분류한 5개의 애착유형과 Ainsworth의 상호점수체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는데, 말하자면 Main과 Cassidy의 분류체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과 Ainsworth의 상호점수체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에서 유치원유아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행동들을 빼 나머지로써 안정점수체계(1-7문항), 불안-회피점수체계(8-15문항), 불안-모순점수체계(16-21문항), 불안 통제점수체계(22-27문항), 불안-비분류점수체계(28-30문항)의 총 30문항의 9점척도이다.

2) 유아의 기질

천희영(1992)이 Thomas와 Chess(1967)에 의해 개발된 Parent Temperament Questionnaire(PTQ)와 Carey와 Medevitt(1978)가 개발한 Revised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RITQ) 및 어머니와의 면접에서 수집된 것을 참고로 하여 만 3세에 7세까지의 우리나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유아용 기질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기질 평정척도는 Thomas와 Chess의 뉴

육종단연구에서 나타난 기질구성차원을 요인 분석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기질구성차원으로 밝혀진 5개 구성차원 즉 활동성, 적응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 정서성에 따른 3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유아의 어머니이며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차원의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각 구성차원들은 1점에서 4점범위의 점수로 환산되는데 이는 각 구성차원별 문항수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각 구성차원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 (1) 적응성: 새로운 자극 또는 변화에 대한 적응도가 높음.
- (2) 활동성: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함.
- (3) 생리적 규칙성: 수면, 식사에 관련된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임.
- (4) 반응성: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강하게 반응을 보임.
- (5) 정서성: 반응에 수반되는 정서상태가 긍정적임.

3. 연구절차

1) 예비실험

본 연구를 진행하기 앞서 5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1, 2, 에피소드에서는 5, 10분정도가 알맞은 것으로 보였고, 제3에피소드에서는 50분이상 소요될 시, 유아들이 실험실 밖으로 나가려하거나 지루해하는 반응을 보임으로서 가장 적당하게 생각되는 시간으로 조정하였으며, 제3에피소드 기간 중 일정한 장난감을 배열하기 보다는 자연스런 유치원 교실 상황을 연출하기 위하여 유아가 놀이감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비

구조화된 실험실을 만들었다. 또한 유아들이 어머니와의 재결합시 나타나는 반응을 명료화하기 위하여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면서 유아의 이름을 크게 부르게끔 하여 어머니의 등장을 강조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수정을 하였다.

2) 본 실험

본 실험 상황은 예비 실험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하여 유아가 현재 다니고 있지 않는 다른 유치원의 교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실험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1) 낮선상황절차

본 연구에서 실시된 낮선상황절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에피소드 1:5분. 유아, 어머니, 낮선이.

낮선이는 어머니와 유아를 지정된 위치에 안내하고 우호적인 담화시간을 갖는다.

에피소드 2:10분. 유아, 어머니.

생소한 장소가 주는 불안을 감소하기 위한 기간으로 낮선이는 실험실을 나갈만한 사정을 말하고 자연스럽게 나오고 유아는 낮선이가 나간 다음 어머니와 함께 색칠하기를 한다.

에피소드 3:45. 유아, 낮선이.

낮선이가 들어오며 어머니에게 실험실을 떠나야 할 사정을 말하며 어머니는 떠나기 전 유아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나간다. 유아는 전반부는 간단한 지능검사를 실시하고 어머니가 돌아오기 직전 적어도 15분간은 긴장을 풀기위하여 자유놀이에 참여한다. 이 기간 중 어머니는 유아의 기질검사지를 작성한다.

에피소드 4:5분. 유아, 어머니.

에피소드 3이 끝난 후 어미는 돌아옴을 알

리면서 자연스런 재결합을 유도하고 낯선이는 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빠져나온다. 5분후 낯선이가 실험이 끝났음을 알림과 동시에 실험이 끝난다. 여기서 유아가 어머니와의 격리 후 재결합시 보여주는 반응이 주요 관찰대상으로 연구의 초점이 된다.

위의 상황은 모두 비디오 카메라에 녹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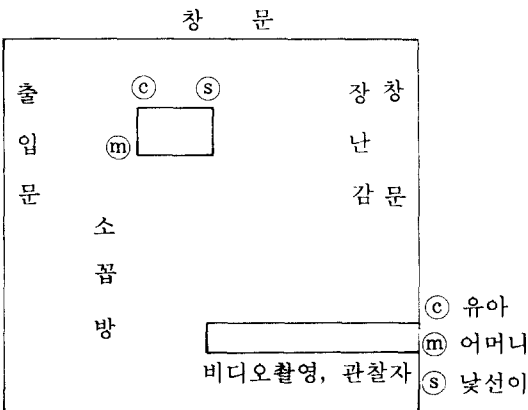
(2) 낯선상황실험실의 물리적 상황

실험실의 물리적 상황은 <그림 1>과같이 배치하였으며 비디오 촬영은 유아의 동작과 표정을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도록 유동적이게 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을 위해 애착유형의 분류는 낯선상황실험시 관찰자가 될 수 있는 한 상황 그대로의 기술과 이를 토대로 연구자가 개발한 검사지를 작성하였고,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를 근거로 다른 두 관찰자(연구자 포함)가 15초 단위로 격리후 재결합 5분동안 유아가

<그림 1> 실험실의 물리적 상황



나타내는 애착행동(에피소드 4에서)을 5개 유형별로 변수 지속시간, 행동의 주도성, 행동의 즉각성 등을 중심으로 1점에서 9점까지의 점수를 주었다. 측정의 신뢰도를 위하여 비디오 테이프를 2-3회 반복 관찰하여 평균점수를 내었다. 5개의 애착유형분류에 대한 두 관찰자간의 일치도는 96.5%였으며, 10개의 하위 유형에 대한 일치도는 84.7%였으며 불일치한 경우 함께 재관찰을 통하여 합의에 도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χ^2 , t검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애착유형분류(연구문제 1)

첫번째 연구문제는 유치원 유아의 애착유형 분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유형별로 분류된 피험자들의 빈도와 백분율이 산출되었다. 이 결과는 Main과 Casidy(1988)의 애착유형분류와 비교되어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유치원 유아의 모-자간 애착유형은 안정애착형이 40.6%로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 불안-회피형, 불안-통제형, 불안-모순형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불안-비분류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Main과 Cassidy(1988)가 실시한 살롱연구에서 ses<표

〈표 1〉 유아의 모-자간 애착유형분류

애착유형	본연구		Main & Cassidy연구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불안-회피형(A)	10	31.3	5	16.1
안정애착형(B)	13	40.6	13	41.9
불안-모순형(C)	4	12.5	6	19.4
불안-통제형(D)	5	15.6	7	22.6
전 체	32(명)	100(%)	31(명)	100(%)

sion I 과 session II 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피험자의 비율과 비교해 볼 때 B, C, D 집단은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나 A 집단은 다소 차이를 보여준다. 즉, 국내의 불안-회피형 유아가 Main과 Cassidy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유아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6세아를 대상으로 한 Cohn(1990)의 연구에서는 B집단이 55%, A집단이 14%, C집단이 6%, D집단이 15%, 그리고 U(불안-비분류)집단이 10%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국내 유아의 전반적인 불안애착형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 애착유형을 10개의 하위애착유형으로 나눈 것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하위유형(지연적 안정형, 고도의 안정형, 의존적 안정형, 고도의 회피형, 중립적 회피형, 증오적 모순형, 수동적 모순형, 처벌적 통제형, 보호적 통제형, 불안 비분류) 중 증오적 모순형과 불안 비분류형을 제외한 8개가 나타났다.

이는 Ijzendoorn과 Kroonenberg(1988)가 나라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입증함에 비추어 이러한 분포에 대한 불일치는 문화적인 차이에서 연유된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성별에 따른 애착유형의 비율에 대한 비교에서는 남아의 68%가 불안애착형이며, 특히 A 집단과 D집단에 있어서 남아가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아의 절반 이상이 안정애착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이 여아들에 대한 반응과 달라서 불안애착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Egland & Farber, 1984)에 비추어 볼 때 어머니의 성별에 따른 반응성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유아 자신의 기질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증결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alpha = 1.587, df = 1$). 이는 대상수가 작음에 연유한 것인지 더 자세한 검증이 요망된다.

2. 유아의 기질과 모-자간 애착(연구문제 2)

두번째 연구문제는 유아의 기질이 모-자간 애착유형의 발달과 어떤 상관을 가지는가를 밝혀보는 것이었다.

안정애착집단과 불안정애착집단간의 기질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2〉 안정애착집단과 불안정애착집단간의 기질비교

기질	안정애착형		불안정애착형		t	df
	M	SD	M	SD		
적응성	3.19	0.44	2.86	0.51	1.90*	23.5
활동성	3.01	0.68	3.06	0.54	-0.20	29.3
생리적 규칙성	3.42	0.45	3.35	0.47	0.40	25.4
반응성	3.18	0.65	2.84	0.59	1.52	27.5
정서성	3.30	0.57	3.20	0.63	0.50	24.2

*p<.05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질의 5개 차원중 적응성 차원이 애착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높으며 안정된 애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적응성이 높은 유아가 안정애착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Waters, Vaughn, 및 Egland(1980)가 신생아 때 유난히 까다로운 유아들이 불안정 애착유형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는데 기질의 하위변인중 낮은 적응성을 보이는 아이들은 까다로운 영아로 구분되었음(최영희, 1990)을 볼 때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와 어느정도 일치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질의 다섯차원중 적응성차원만이 안정된 애착과 관계가 있으나 다른 네 차원들은 설명력이 희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의 시초에 불과하므로 본 연구의 결과로서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보다 설득력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후속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유치원 유아의 모-자간 애착유형은 Main과 Cassidy(1988)의 5개의 애착유형중 4개의 유형이 나타났는데 안정애착형, 40.6%, 불안회피형, 31.3%, 불안통제형, 15.6%, 불안모순형, 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0개의 하위유형중에서는 8개의 유형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애착유형의 비교결과는 남아에 있어서 안정애착형보다는 불안정애착형의 빈

도가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었고, 여아에 있어서는 안정애착형이 불안애착형보다 더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국내 유치원 유아의 애착유형분류를 위해서는 Main과 Cassidy(1987, 1988)의 애착유형분류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증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착유형의 형성에 유아의 기질이 어떻게 관련될 것인가에 대한 검증 결과는 기질의 5차원중 적응성이 안정애착의 형성에 이바지한다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애착의 질을 영아자신의 행동이 보다 잘 예측한다는 Lewis와 Feiring(1989)의 연구결과와 애착과 기질간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Lewis등(1984)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서 애착에 대한 연구가 주로 어머니와 관련되어 행해지기보다는 아동자신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유아의 애착유형분류 체계에 대한 검증과 애착유형발달에 대한 기질의 영향에 대한 분석에 한정하였는데 보다 나이든 아동에 대한 애착유형분류에 대한 검증과 애착유형발달에 대한 기질이외의 어머니의 민감성이나 반응성같은 보다 확대된 관련변인들을 포함한 체계적 분석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천희영. (1992).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영희. (1990). 아동의 기질이 모자 상호작용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insworth, M. D. S. (1963). 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interaction among the Ganda. In B. M. Foss(Ed.), Determinants of infant behavior II. New York: Wiley, 67-104.
- Ainsworth, M. D. S. (1967). Infancy in Uganda: Infant-care and the growth of love.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Ainsworth, M. D. S. (1973). 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 B. Caldwell & H. Riccini(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insworth, M. D. S. & Bell, S. M. (1970). Attachment, exploration and seperation: illustrated by the behavior of one-year-olds in a strange situation. Child Development, 41, 49-67.
- Ainsworth, M. D.,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ew Jersey: Erlbaum.
- Bell, R. (1971). Stimulus control of parent or caretaker behavior by offsp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1, 63-71.
- Belsky, J., Rovine, M. & Taylor, D. G. (1984).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III: The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Maternal and infant contributions. Child Development, 55, 718-728.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2, Serial No. 209).
- Carey, W. B., & McDvitt, S. C. (1978). Revision of the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 Pediatrics, 61, 735-739.
- Cohn, D. A. (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Crockenberg, C. B. (1986). Are temperamental Differences in babies associated with predictable differences in caregiving? In J. V. Lerner & R. M. Lerner(Eds.), Temperament and Social Interaction in Infant and Children. Jossey-Bass.
- Goldsmith, H. H., & Alansky, J. A. (1987). Maternal and infant temperamental

- Predictors of attachment: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805-816.
- Goldsmith, H. H., & Gottman, I. I. (1981). Origins of variation in behavioral style: A longitudinal study of temperament in young twins. Child Development, 52, 91-103.
- Hartup, W. W. (1979). The social worlds of childhood. American Psychologist, 34, 944-950.
- Ijzendoorn, M. H., & Kroonenberg, P. M. (1988). Cross-cultural patterns of attachment: A meta-analysis of the strange situation. Child Development, 59, 147-156.
- Levine, R. A. (1973). Culture, behavior, and personality. Aldine Publishing Company
- Lewis, M., Feiring, C., McGuffog, C. & Jaskir, J. (1984). Predicting Psychopathology in six-year-olds from early social relations. Child Development, 55, 123-136.
- Main, M., & Cassidy, J. (1988). Categories of reponse to reunion with parent at age six: Predictable from infant attachment classification and stable over a one-mother period. Developmental Psychology, 24, 415-426.
- Main, M., Kaplan, N.,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 Sroufe, L. A. (1979).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J. D. Osofsky(Eds.),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pp.462-516). New York: Wiley.
- Sroufe, L. A. (1985). Attachment class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fant-care giver relationships and infan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14.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unner/Mazel.
- Thomas, A., Chess, S., & Birch, H. G. (1968). Temperament and behavior disorders in childre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Waters, E., Vaughn, B. E., & Egeland, B. R. (1980).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 mother attachment relationships at age one: Antecedents in neonatal behavior in an urban economically disadvantaged sample. Child Development, 51, 208-216.